

가정 예배 모범

- 2022_12_0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뤄 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섬김)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전도서 4장 1~ 6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해 아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1절)?

전도자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학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슈크’는 억압하고 압제한다는 의미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불평등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들, 종들, 백성들, 나그네, 고아, 과부처럼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위로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학대받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고통받는 약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2)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무엇입니까(6절)?

전도자는 지나치게 일하며 두 손이 가득한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한 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카프’로서 평평하게 펼친 손을 말합니다. 반면에 두 손에서 ‘손’은 ‘호펜’이라는 히브리어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오므린 손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지나친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보다, 욕심 없이 자족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우리의 노력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맺게 하시는 거룩한 열매입니다(갈 5:23). 우리의 삶 속에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절제의 열매가 맺히도록 간구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